



**2020년 7월 16일(목) 조간부터**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7. 15.(수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배포일시 | 2020. 7. 15.(수)      | 담당부서 | 투자유치과                |
| 담당과장 | 김규성 과장(044-203-4080) | 담당자  | 장원 사무관(044-203-4081) |

## 2020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

- '20. 7. 15.(수) 배포 -

※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본 동향 자료는 산업부의 외국인직접투자통계(INSC)와 외국인직접투자연구센터, 코트라(KOTRA)의 자료를 바탕으로 **2020년 상반기** 외국인직접투자를 분석한 자료임
- 신고금액 및 도착금액은 **6월 30일까지의 잠정실적을**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, **일부 수치는 추후 변경이 가능함**
- 산업부의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은 **매분기 발표되며**, '20년 3분기 (누적)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자료는 '20년 10월 발표 예정

# 2020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

## - 신고기준 76.6억불, 도착기준 47억불 -

### I. 종합

- (실적) '20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(FDI)는 신고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.4% 감소한 76.6억불, 도착기준은 23.9% 감소한 47억불을 기록

#### 【 최근 10년('10-'19)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(단위 : 억불) 】

|    | 2010 | 2011 | 2012 | 2013 | 2014  | 2015 | 2016  | 2017 | 2018  | 2019 | 10년<br>평균 | 2020 |
|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|------|-------|------|-------|------|-----------|------|
| 신고 | 43.3 | 53.6 | 71.1 | 80.0 | 103.3 | 88.7 | 105.5 | 96.0 | 157.5 | 98.7 | 89.8      | 76.6 |
| 도착 | 22.8 | 29.6 | 48.8 | 46.4 | 76.0  | 63.1 | 51.5  | 54.8 | 102.7 | 61.8 | 55.8      | 47.0 |

- (평가) 코로나19로 인한 국경간 이동 제한,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글로벌 FDI가 감소한 가운데 우리 FDI도 본격적인 영향을 받기 시작함

- 다만, 감소폭은 美·日 등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편임

\* (美 억불) ('19.1Q) 816 → ('20.1Q) 526 (△35.5%) / (日, 억엔) ('19.1Q) 16,023 → ('20.1Q) 3,057 (△80.9%)

- 일본 수출규제 대응 노력으로 ①소·부·장, ②R&D센터 등 첨단분야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고, 코로나19로 인한 전자상거래, 온라인 교육 등 ③언택트(Untact) 분야에 대한 투자유치 기회가 확대됨

- (글로벌 전망) UNCTAD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 세계 FDI는 '20년은 '19년(1.54조불) 대비 40% 감소할 것(1조불)으로 전망

- '21년에도 5~10% 추가 감소하여 9천억불 이하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

#### 【 UNCTAD의 글로벌 FDI 전망 】

|         | 초기 전망(3.8) | 수정 전망(3.26) | WIR 전망(6.16) |
|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FDI 감소율 | 5~15%      | 30~40%      | 40%          |

## II. '20년 상반기 주요 특징

### 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언택트(Untact) 분야에 새로운 투자 기회

- 비대면(Untact), 디지털 전환(Digital Transformation) 시대에 대응하여 온라인 플랫폼 기반 전자상거래, 온라인 교육, 재택근무 관련 투자와 이를 지원하는 물류센터, 클라우드 서비스 등의 투자 유입
-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세계적인 모범사례로 평가받은 “K-방역” 성과에 기반한 의약·의료기기 분야 투자 사례도 증가

#### 〈포스트 코로나 주요 투자사례〉

- ▶ (A社) 국내 유명 온·오프라인 교육서비스 기업 지분 투자(케이만군도, 1억불)
- ▶ (B社) 기업용 메신저, 영상회의, PC화면 공유 등 비대면 업무 지원(日, 0.5억불)
- ▶ (C社) 신선식자재 콜드체인 물류시스템 고도화 투자(케이만군도, 1.2억불)
- ▶ (D社) 건강기능식품 대량생산을 위한 조직배양 기술 R&D 시설 투자(美, 0.9억불)

### ② 4차 산업혁명과 관련 IT, 의약, 연구개발 등 신산업 분야 유치 확대

-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,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IT, 생산기술 혁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신산업\*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였으며, 전체 FDI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\*\*

\* 자율주행차, 로봇, 인공지능, 빅데이터, 모바일, 블록체인, 의약, 전자상거래 등

\*\* 신고금액 및 비중 : ('19.상) 37.6억불, 38.1% → ('20.상) 38.1억불, 49.7%

- (제조업) ①인공지능·빅데이터 등 ICT와 접목한 의약·의료기기 관련 국내 유망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투자와 ②반도체·이차전지 등 전기·전자 분야 투자가 증가

\* (신고기준, 억불) ①의약 : ('19.상) 1.3 → ('20.상) 4.2, ②전기·전자 : ('19.상) 1.9 → ('20.상) 6.7

- (서비스업) ①게임·방송·전자상거래 이용 증가에 따른 새로운 플랫폼 서비스 등 정보통신 관련 투자와 ②바이오·전기전자 등 첨단산업 분야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지속

\* (신고기준, 억불) ①정보통신 : ('19.상) 8.0 → ('20.상) 10.1, ②연구개발 : ('19.상) 2.9 → ('20.상) 7.0

#### 〈 신산업 주요 투자사례 〉

- ▶ (E社) 당뇨, 심혈관 치료 약품·의료기기 개발 및 제조(中, 0.2억불)
- ▶ (F社) 스마트폰 고속충전 집적회로 설계·개발(美, 0.3억불)
- ▶ (G社) 데이터센터 증설을 통해 아시아 지역 서비스 확대(美, 2억불)
- ▶ (H社) 배송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새로운 IT기술 개발 (美, 1.5억불)

### ③ 日 수출규제 대응 소·부·장 분야 투자 유치

-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대외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·디스플레이 소재 관련 국내 수요기업의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투자 유치 성과

#### 〈소부장 주요 투자사례 ①〉

- ▶ (I社) EUV용 포토레지스트 개발·생산시설 구축 (美, 0.3억불)
- ▶ (J社) 반도체 패키징·디스플레이용 드라이 필름 국내 생산(日, 0.1억불)
- ▶ (K社) 반도체 생산공정에 필요한 석영유리 제품 생산 (日, 0.1억불)

- 이차전지, 자동차 부품, 컴퓨터기기, 기능성 소재 등 첨단산업 분야 핵심 소재·부품에 대한 투자는 지속

#### 〈소부장 주요 투자사례 ②〉

- ▶ (L社) 하이브리드 자동차용 고성능·고수명 배터리 생산(美, 0.06억불)
- ▶ (M社) 자동차 안전 부품(에어백 액츄레이터) 생산공장 (美, 0.1억불)
- ▶ (N社) 기업용 대형 프린팅 연구개발(네델란드, 2.5억불)
- ▶ (O社) 위생·의료·산업용 친환경 복합소재(스펀본드) 생산 (日, 0.1억불)

### III. 향후 대응방향

『소부장 2.0 전략』과 연계하여 국내·외 첨단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세계적인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조성

#### ◆ 명확한 유치 타겟 설정

- 미래시장을 선도할 첨단 소부장 분야와 우리에게 강점이 있고 미래 시장 선점에 필수 분야인 반도체·바이오·미래차 등 (Big3+a) 을 선정
  - \* 산업생산 중요성, 기술수준, 특정국 의존도 등을 고려하여 첨단형 158개 품목, 100여개 기업
- 또한, 언택트(Untact) 수요 확대에 따라 성장 가능성이 큰 전자상거래, 디지털기기, DNA 등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 강화

#### ◆ 세계적인 첨단산업 클러스터 육성

- 다양한 국내·외 첨단산업 분야 투자를 범부처적으로 지원하는 “첨단투자지구”를 신설하여 세계적인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육성
  - 이는 새로운 특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개발된 계획입지(산업단지, 경제자유구역 등) 일부를 활용하여 첨단산업 투자를 유도
  - 입주 기업에게는 기존 계획입지에 제공되는 혜택에 더해 토지이용 특례, 규제자유특구 우선 심사, 공동인프라 구축 등을 추가적 지원

#### ◆ 제도개선 및 지속적인 투자유치 활동

- 첨단산업 투자에 대해 지원하는 현금지원 제도를 개편하여, 지원 한도를 확대하고 국비보조율을 상향하는 등 인센티브 강화
  - \* 지원한도 : 첨단·소부장 30%, R&D센터 40% → 첨단·소부장 40%, R&D센터 50%
  - 국비·지방비 매칭비율 : 수도권 3:7, 비수도권 6:4 → 수도권 4:6, 비수도권 7:3
- 투자세액공제 개편을 통해 신성장·원천기술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첨단분야 투자에 대해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
  - \* ① 지원대상 확대, ② 요건 완화, ③ 공제율 우대, ④ 이월공제기간 연장 등
- 코로나19 대응 역량을 강조한 안전한 대한민국 홍보 동영상\*을 제작하여 해외 투자가 대상 비대면 투자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
  - \* 코로나19 대응역량, 유망투자 분야 및 사례, 맞춤형 투자지원 제도 안내 등

## IV. 세부동향(국가별 · 업종별 · 유형별)

### 1. 국가별 (신고기준, 전년동기대비)

#### ① 미국 : 신고 17.6억불(△43.5%), 도착 5.2억불(△20.9%)

- (업종별) 제조업 감소(6.7억불, △46.3%), 서비스업 감소(10.9억불, △41.3%)
- (유형별) 그린필드형 감소(17.4억불, △42.9%), M&A형 감소(0.2억불, △73.4%)

#### ② 유럽연합(영국포함) : 신고 13.1억불(△51.2%), 도착 11.0억불(△63.9%)

- (업종별) 제조업 증가(5.2억불, +15.0%), 서비스업 감소(7.6억불, △65.1%)
- (유형별) 그린필드형 감소(8.6억불, △13.5%), M&A형 감소(4.5억불, △73.4%)

#### ③ 일본 : 신고 4.6억불(△15.0%), 도착 4.0억불(△15.8%)

- (업종별) 제조업 감소(0.9억불, △52.2%), 서비스업 증가(3.6억불, +5.4%)
- (유형별) 그린필드형 감소(2.8억불, △34.8%), M&A형 증가(1.8억불, +57.7%)

#### ④ 중화권 : 신고 27.7억불(+66.8%), 도착 16.6억불(+53.0%)

- (업종별) 제조업 증가(8.3억불, +40.5%), 서비스업 증가(19.3억불, +80.8%)
- (유형별) 그린필드형 증가(17.2억불, +12.8%), M&A형 증가(10.5억불, +655.0%)

\* 중화권 : 중국, 홍콩, 싱가포르, 대만, 말레이시아

\*\* 중국 : 신고 8.6억불(+184.4%), 도착 1.3억불(+69.0%)

#### ⑤ 기타 : 신고 13.7억불(△27.4%), 도착 10.3억불(+11.9%)

- (업종별) 제조업 감소(1.9억불, △69.7%), 서비스업 감소(11.8억불, △7.4%)
- (유형별) 그린필드형 감소(9.2억불, △17.1%), M&A형 감소(4.6억불, △41.9%)

## 2. 업종별 (신고기준, 전년동기대비)

### ① 제조업 : 신고 22.9억불(△25.7%), 도착 11.1억불(△24.6%)

- (증가업종) 전기·전자(1.9→6.7억불), 의약(1.3→4.2억불)
- (감소업종) 기계장비·의료정밀(9.9→1.6억불), 운송용기계(6.9→1.3억불)

### ② 서비스업 : 신고 53.2억불(△20.9%), 도착 35.7억불(△10.2%)

- (증가업종) 연구개발·과학기술(2.9→7.0억불), 금융·보험(15.8→18.8억불)
- (감소업종) 도·소매(유통)(18.7→3.9억불), 부동산(14.2→9.1억불)

## 3. 유형별 (신고기준, 전년동기대비)

### ① 그린필드형 : 신고 55.0억불(△22.3%), 도착 23.7억불(△32.1%)

- (업종별) 제조업 감소(24.6→21.9억불), 서비스업 감소(45.9→32.9억불)
  - (증가업종) 전기·전자(1.3→6.7억불), 정보통신(7.9→9.8억불)
  - (감소업종) 도·소매(유통)(12.8→3.7억불), 기계장비·의료정밀(9.2→1.6억불)

### ② M&A형 : 신고 21.6억불(△22.7%), 도착 23.3억불(△13.2%)

- (업종별) 제조업 감소(6.2→1.0억불), 서비스업 감소(21.3→20.3억불)
  - (증가업종) 금융·보험(10.9→16.1억불), 연구개발·과학기술(0.4→3.2억불)
  - (감소업종) 도·소매(유통)(6.0→0.1억불), 숙박·음식(3.8→0억불). <끝>



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 
투자유치과 장원 사무관(☎ 044-203-408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